

점술(占術)에 대한 성경적 비판

Biblical Criticism on Divination

전광식(고신대 신학과 교수)

I. 과학화의 그늘에 여전히 살아있는 점술

II. 점술의 어원과 종류

III. 거룩한 공동체와 미신행위

IV. 미신의 유혹에 대한 신앙적 태도

V. 결론

점술(占術)에 대한 성경적 비판

전광식 교수 (고신대)

요약문

과학의 위력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고도계몽과 첨단문명의 시대에도 비계몽적이고 미신적인 점술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우리사회만 보더라도 정부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조사>에 따르면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여전히 우리 국민 상당수가 점술과 무속, 미신을 신뢰하고 있고 또 그런 행위를 하는 곳을 찾고 있다. 이러한 점술행위는 불안정한 시대상황을 사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반영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삶에 있어서 성실한 노력보다 어떤 요행을 추구하려는 나태한 마음, 그리고 초월적인 능력에 대한 신뢰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점술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행하는 것은 그것이 원시 사회 내지 미발달된 사회에서만 잔존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현상이라는 인간정신의 현상이라는 뜻이다.

성경에도 특히 구약에 여러 가지 점술들을 지적하고 이를 비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 점술 가운데는 점성술, 해몽술, 간점, 막대점 내지 화살점 수점 내지 액체점, 자연점, 드라빔, 영매술, 그리고 제비뽑기 등이다. 고대 중국에서도 이러한 점이 성행했고 특히 사서가운데 하나인 <주역>(周易)은 본래 점술을 이론화한 서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미신적이고 영적인 현상을 보면서 먼저 영적 분별력을 지녀야 하고, 미신적 행위에 대한 호기심을 버려야 하며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성령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며, 자신의 장래를 하나님의 손안에 맡겨야 한다.

키워드: 파이어아벤트, 점, 점술, 한국인의 의식, 한국인의 가치관, 무속 미신, 주역

I. 과학화의 그늘에 여전히 살아있는 점술

현대에 있어 학문이론을 연구하여 그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한 쿤(Thomas Kuhn), 헨슨(N. R. Hanson), 폴라니(Michael Polanyi) 같은 이들은 과학적 지식의 절대주의를 배격했는데 거기에서 진일보하여 거의 반(反)과학주의의 기치를 내세운 이가 파울 파이어아벤트(Paul Feyerabend)이다. 「반방법」(反方法, Against Method)과¹⁾ 「이성(理性)이여 안녕」²⁾(Farewell to Reason) 등의 책을 쓴 그는 아예 계몽되기 이전의 신화나 미신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대담한 결론을 내림으로 소위 과학주의를 종언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그는 과학이란 신성불가침의 영역도 아니고 또 진리에로 이끄는 안내자도 아니라고 하면서 과학적 지식으로 자처하는 현대의 서양의학이 동양의 한방이나 또 심리치료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은 서구적 편견이라고 공박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학교에서는 과학뿐 아니라 점성술 같은 점술(占術)과 마술 등도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되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배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변한다.

어쩌면 파이어아벤트의 이러한 논지를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작금의 현실에서 첨단과학기술과 계몽되지 못한 점술과 무속의 아이러니칼한 혼재를 목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몽된’ 과학이 후자를 전적으로 전(前)근대적이요 무가치한 것으로 배격하고 있지 않고 있음도, 또 대중들이 그 의식과 살면서 양자의 병존을 허용함도 보고 있다.

1996년 우리 정부산하 공보처가 공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자료편, P.112)에 보면 ‘역술가의 예언이나 운세풀이를 어느 정도 믿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4.8%, ‘어느 정도 그렇다’가 33.2%로서 합 37.9%가 점술에 대해 긍정적인 신뢰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년주기에 걸친 이 연구는 2001년도에도 국정홍보처 주관으로 이뤄졌는데 1996년도와 동일한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4.0%, ‘어느 정도 그런 편이다’가 35.7%로서 합 39.9%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5년전보다 다소 상향했음을 볼 수 있다.³⁾

그리고 2006년 국정홍보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조사한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에는 운세와 점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1) Paul Feyerabend, Against Method, London 1973

2) Paul Feyerabend, Farewell to Reason, London 1987

3) 2001년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조사(개인/가정부문), 2001 국정홍보처

‘풍수지리’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뤄졌는데, 응답자의 4.4%가 ‘매우 믿는다’ 35.6%가 ‘대체로 믿는다’라고 하므로 전체 40%가 풍수지리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하지만 이는 5년 전 같은 질문에 대한 52.6%의 긍정적인 답변에 비해 제법 떨어졌음을 볼 수 있다. 하여튼 이러한 통계들은 오늘날과 같은 고도 문명의 시대에 사람들은 상당수 미신적이고 비계몽적인 운세, 점술, 풍수지리 등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큰 차이는 없는데 갤럽이 몇 년 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인의 약 4분의 1이 점성술을 신빙할 만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일간지에 나오는 ‘점성란’을 읽는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이나 부산의 드러난 곳이나 구석진 곳을 다녀보면 운명감정소, 철학관 작명소, 예언의 집 그리고 각종 도사의 집들이 깜짝 놀랄만한 정도로 많이 있다. 그리고 대학가 주변에도 ‘오늘의 운세’나 ‘사랑의 별점’ 등 컴퓨터로 점을 보는 기구들이 널부러져 있고, 10대들도 분신사마놀이의 볼펜점을 즐기고들 있는 것이다.

북한도 오랫동안 점술과 무속신앙을 엄격히 단속해왔으나 탈북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1997년을 전후하여 그 단속이 느슨해졌고 암암리에 이를 묵인하기 시작했으며, 오로지 기독교를 막는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전한다.

혹자는 이러한 점술이나 무속은 사회의 혼란기와 역사의 과도기에 성행한다고 하지만 오늘의 우리사회나 서양사회는 꼭 그렇지만 않음을 보여준다. 정치인들은 자신의 앞날과 권력의 흐름을 알기 위해, 혼인을 앞두고 있는 이들은 궁합과 결혼길일을 알기 위해, 또 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입시와 취업을 앞두고, 또 정초에는 그 해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 또 많은 경우에는 호기심 반 재미 반으로 점술을 향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점술에 의지하는 심리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불안정한 시대상황을 사는 사람들의 불안심리를 반영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실한 노력보다 어떤 요행을 추구하려는 나태한 마음, 그리고 초월적인 능력에 대한 신뢰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점술이 단순히 혼란기나 과도기적 시대의 산물인 것도 또 비계몽적이고 신화적인 세계관이 지배하는 원시 사회 내지 미발달된 사회에서만 잔존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 상업행위로 하는 경우도 흔하다. 하여튼 점술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리에서

4) 2006년도 한국인 의식, 가치관조사, 국정홍보처 2006

떠난 타락한 인간의 미신적 행위이며 그릇된 삶의 태도이요 또 악한 영과 인간 죄성이 합세해서 빚어낸 영적 최악이라는 점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현상만 아니라 그 근원과 본질에 있어서 종교적, 영적 현상이라는 것이다.

II. 점술의 어원과 종류

1. 점술의 어원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를 섬기고 살아 왔는지 또 그렇게 살수 있는지를 말할 뿐 아니라, 반면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왔는지도 말씀하고 있다. 말하자면 종교의 양지와 음지를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성경에는 우상숭배자, 신접자, 점성가, 요술가, 초혼자, 점술가들의 그릇된 종교적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특히 점(占)과 점괘 점술가들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광범위하게 기술하고 있다.

구약에서의 ‘케셈(qeshem)’, ‘나하쉬(nachash)’, ‘야난(yanan)’ 등의 히브리어 낱말들과 신약에서의 ‘파이돈(phython)’, ‘만테우오마이(manteuomai)’ 등의 헬라이어 개념들은 다 ‘점’과 ‘점괘’, 그리고 ‘점치는 행위’를 지칭하는 낱말들이다.

성경 밖에서 일반적으로 점에 대해서 쓰여지는 라틴어는 ‘divinatio’ 또는 ‘divino’로서 이것은 미래에 대해 예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점술과 관련하여 헬라이어에서는 ‘manteion’이라고 흔히 쓰이는데, 이는 크게 보아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1)신들의 메시지가 그것을 활용하려는 개인들에게 내려지는 신전 내지 장소, 2) 이러한 메시지와 chresmos가 내려지는 선견자 또는 점복가, 3)신에게서 내리는 이러한 메시지나 신탁 자체이다.⁵⁾

점술을 나타내는 종합적 용어인 헬라이어 ‘manteion’과 ‘mantis’는 헬라이어 ‘maino’와 ‘mainomai’에서 왔는데, 이것은 ‘흥분되다’, ‘격노해지다’, ‘선동되어지다’, ‘격앙되어지다’의 의미이다. 이 헬라이어는 고대헬라이어 ‘mao’ 내지

⁵⁾ John H. Manas, *Divination Ancient And Modern: An Historical, Archaeological And Philosophical Approach to Seership And Christian Religion* 1947, Kessinger Publishing 2004 reprint, 58

‘maiomai’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용어들은 ‘애쓰다’, ‘알기를 원하다’의 뜻이다. 이 용어에서 ‘menos’가 왔고, 이 형용사는 ‘어떤 비범한 능력의 영향이나 심리적 조건의 상태하에 놓인 개인의 비자연적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발작, 초자연적 흥분에 빠진 인간의 육체적 정서적, 정신적 상태’와 ‘미래를 말하는 개인의 능력’을 지칭하는 manteion, mantevma, mantevo가 사용되었던 것이다.⁶⁾

2. 성경에 나타난 점술의 종류

성경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의 점들이 언급되어 있다. 특히 그 무대가 팔레스타인에 모아져 있는 복음서의 신약보다 훨씬 고대 근동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구약에는 당대의 근동국가들에서 시행되었던 많은 점술들이 나타나고 그것은 또 이러한 지역들과 교류하면서 물론 이스라엘백성들에게서도 보여진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점들은 현상적으로는 1)자연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과 2)인간들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 수단별로는 1) 심령적이고 내적인 형태와, 2)물적이고 기술적인 형태, 관찰 방식으로는 1)국가적이고 공적인 방식과 2)개인적이고 사적인 방식, 또 본질적 양태로는 1) 악한 영의 도움으로 하는 양태와 2) 거짓과 속임수로 하는 양태가 있다. 이런 다양한 이중적 구분은 어떤 경우에는 양자의 혼합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류의 점들이 있는가?

1. 점성술(占星術): 이 점술은 다른 점술과 달리 고대에서는 국가가 독점한 것으로서 고대 중국과 바벨론에서 발달한 것으로 성경에도 (사47:13, 램 10:2) 언급되고 있다.

이 점술은 여타의 점술에 비해 악한 영이나 귀신의 술수와 관련되기보다 비계몽(非啓蒙)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탈레스(Thales)의 경우에 보듯이 계몽과 함께 이것은 천문학(astronomia)으로 발전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에 대해 명백히 정죄 되지는 않고 다만 경시되어 있는 것이다. 동방박사의 내방은 점성술을 이용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임을 알 수 있다.

2. 해몽술(解夢術): 고대 헬라의 사상에서는 (이를테면 Iamblichos) 인간의

⁶⁾ ibid. 59f.

잠을 잘 때 영혼이 육체로부터 떨어져 나와 꿈을 통해 미래를 투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Homer는 꿈은 Zeus신이 보낸 것으로 보았으며 Herodotus도 신탁(神託)과 함께 꿈을 중요한 양대 점술 행위로 간주 했던 것이다. 구약(렘23:25-27)에는 거짓 예언자들이 꿈을 통해 예언력을 가질려는 부질없는 시도가 나와 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꿈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지시의 방편으로 쓰이고 있다.

3. 간점(奸占): 고대 바벨론에서 보편화 되었던 이 점은 간장을 피의 샘으로 보는데 근거하고 있다. 피는 생명의 원천이므로 제물로 드려진 양의 간장을 살펴 신들의 뜻을 간파해 내는 점술이 행해졌던 것이다. 에스겔 21:21에 이 간점이 언급되고 있다. 간장외에 고대에서는 제물의 다른 부위, 이를테면 쓸개, 비장, 허, 심장 등도 점괘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들 바벨론인들은 신들이 천계에는 물론 동물, 특히 제물로 드려지던 양의 내장에 미래의 미래의 운명을 써 놓았다고 믿었던 것이다.

4. 막대점 내지 화살점: 겔21:21에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갈래길에서 ‘살들을 흔들어’ 어디로 행해야 할지 하는 점괘를 얻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 점은 주로 화살이나 막대기를 공중에 던져서 그것이 떨어지는 방식과 위치로 알려고 하는 것인데, 호4:12에도 ‘백성이 나무를 향해 묻고’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한다’ 고 언급하여 이 점을 말하고 있다. 또 활쏘기를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는데 삼상 20장의 사건은 이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5. 수점(水占) 내지 액체점: 창 44:5에는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한 은잔(銀盞)이 점을 치기위한 것이라는 말씀이 나온다. 잔 안에 물이나 술 등 액체를 부어 그 안에 물의 반짝임과 어우러짐, 요동과 반사 등을 통해 나타나는 형태를 가지고 점을 치는 방식이다. 또 고대에서는 기름을 물통에 붓고 나서 그 속에 만들어진 거품이나 고리 모양을 관찰하는 것도 있다.

6. 자연점(自然占): 여기에는 기상이나 천체의 변화를 살피는 기상점 동물의 행동 내지 출현을 가지고 치는 동물점, 또 싹이 트기 시작한 각종 식물들을 살피는 식물점이 있다. 그래서 기이한 형태의 구름들, 돌발적인 폭풍우, 또 뱀의 출현과 사라짐, 개들과 비둘기, 제비, 까마귀의 모습 등을 관찰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예시를 받는다. 이에 대해 구약 성경은 여러가지 암시를 주고 있다.

7. 드라빔: 점괘나 신탁을 얻기 위해 구약시대에는 드라빔을 사용한 예들이 더러 나타난다. (삼상15:23, 겔21:21, 호3:4, 슝10:2 등). 이 드라빔이 죽은 선조(先祖)들의 상(像)이었다면 그것은 망자(亡者)들의 영혼과 교감할 목적으로 쓰였을 것이다.

8. 영매술(靈媒術): 삼상 28장에 보면 블레셋의 군대에 맞서게 된 사울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 올리려는 장면이 나온다. 고대에서 주문이나 이런 술법으로 죽은 자의 혼령을 불러서 미래에 대해 알고자 하는 점술이 영매의 도움으로 널리 행해졌다. 신18:11, 왕하21:6등도 이것과 관련이 있으나 여러 귀절들(레19:31, 20:6, 대상10:13, 사8:19~20)에서 이는 정죄되었다.

9. 제비뽑기:구약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 방법이 종종 사용되었으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려고 제비뽑는 중(마 27:35)일종의 점의 행위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밖에 고대 근동과 헬라지역에서도 무엇보다 신탁(神託)과 환상이 점술의 중요한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동양에서는 점술의 내력과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동양에서 중국의 점술은 기원전 4세기의 하(夏), 은(殷)나라로 올라간다. 당시에는 주로 자연물을 사용했는데, 이를테면 거북의 등껍질과 짐승뼈를 구워서 그 갈라진 형태에 따라 개인의 운명에 대한 점을 치고 국가에 관한 천기를 읽어 내었던 것이다. 사실 고대 중국의 우주관과 세계관을 잘 기술하고 있는 <역경(易經)>도 이러한 우주만물이 변화하는 원리를 기술한 것으로서 본래 점술을 위해 씌어진 점술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주의 변화원리를 인간에게 적용하기 위해 주역의 괘효(卦爻)가 씌어진 나무젓가락을 뽑아 점을 치는 점술 행위가 나오게 된 것이었다. 이후 주역의 음양(陰陽)이 뜻하는 일월(日月)에 더해 오행(五行)(화, 수, 목, 금, 토)을 더해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것으로 인간의 운명에 대해 점을 치는 소위 명리학이 나오고, 또 이어서 인간이 출생한 생년, 월, 일 시(生年, 月, 日, 時)과 이것이 육십갑자로 구성되어 모두 8글자로 그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사주팔자(四柱八字)론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과

몽골계전통의 샤머니즘이 혼합되어 우리나라의 점술문화를 현성하게 된 것이었다.

동과 서의 이러한 모든 점술들과 강신술 등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지음받아 ‘종교의 씨’(semen religionis)를 지닌 인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두고 그릇된 종교심의 발휘로 무지와 거짓으로 인간을 속이거나 아니면 악한 영의 미혹에 넘어가서 구한 일종의 미신적 행위인 것이다. 그것은 그런 점술들과 점술가들은 옛날이나 오늘날 굳이 Martin Lloyd-Jones의 입술을 빌리지 않더라도 영적 사악함이요 악의 나라들에 속한 악의 권세들의 현현들이다.⁷⁾

III. 거룩한 공동체와 미신행위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상기한 방식 중 일부(꿈, 제비, 환상 등)와 제사장들이 사용한 우림과 둠빔이 도구로 쓰여졌음을 살필 수 있다.

또 신약에서는 행16:16~19에 점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빌립보에 살고 있는 어떤 여자 점술가가 귀신의 힘을 빌려 점술행위를 함으로 그 주인에게 많이 이(利)를 주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녀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어 버리는 사건이 나온다. 우리는 여기의 성령의 역사로 더러운 영이 쫓겨나는 장면을 목도하는 것이다.

하여튼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편만했던 점술행위는 이교적 전통에 기인한 것이고 하나님과 그의 뜻을 망령되이 하는 우상숭배적이고 미신적인 행위였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팔괘(八卦), 오행(五行), 육효(六爻) 따위의 방식으로 점을 쳐 왔다. 그들은 상기한 갖가지 방식으로 점을 쳐 어떤 신적 내지 초자연적 힘을 빌려 개인과 국가의 길흉, 화복을 미리 알고자 했던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대한 불신앙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의 대한 배신적 행위였던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교 세계 속에서 행해진 점술을 수용해서는 아니됨을 엄숙하고도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다.

⁷⁾ Martyn Lloyd-Jone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The Battle Against Spiritual Wickedness in High Places Evangelical Press 2002

신18:10 이하에는 모든 형태의 점술행위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엄금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레19:26,31; 20:6,27)라고 말씀하신다.

이 귀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이교적인 풍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세우실 선지자에게 경청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들은 거짓예언자들이다.(겔13:19, 미3:7 등), 그들이 하는 말은 ‘거짓 복술’이며 (사44:25, 램14:14, 숙10:2 등),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속임수를 쓰고 사술을 쓰며(민24:1) 또 악한 영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점은 모든 다른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행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민들에게는 엄금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너희는... 복술을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레19:26)라고 했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레19:31)고 말씀하는 것이다. 그리고 박수된 자는 돌로 죽일 것을 명령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백성들에게 남아 있는 이러한 이방 풍습을 근절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IV. 미신의 유혹에 대한 신앙적 태도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동료의 얘기가 나온다. 이 영특한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3년동안 바벨론의 온갖 이방지식과 미신적 실습을 배웠지만 그들은 먼저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열배가 나았고(단1:20) 또 미신적 행위와 하나님 섬김을 혼동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박수장 벨드사살’로 칭하여 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의 점쟁이’가 모르는 꿈의 해몽을 얻는데,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수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박수와 술객이 모르는 특별한 신적 과외를 시킨 것이었다.

구약의 이방세계에서 많이 나올 뿐 아니라 사도행전에서의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도 적대자로 나오는 (행13장) 이 박수들은 자연현상 같은 것을 보고 점을 치는 일종의 남자 무당인 것이다. 이들은 악한 영의 도움과 속임수로서 복술을 행했고 예언을 고하는 자들인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들을 능가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자들과 그 실습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다니엘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이 자리잡고 있었으므로 더러운 영들이 침입하지 못하였고 바울에게도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므로 그 '마귀의 자식' (행10:13) 박수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다.

악한 영들과 점치는 영들은 과거나 현재에, 성경적 세계에서나 오늘의 현실에서, 또 도시나 시골에서 할 것 없이 편만해 있다. 바울이 유럽 전도 여행에서 제일 처음으로 마주친 것이 점치는 여자였던 것처럼 이 영들은 오늘도 복음이 가는 길을 막고 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영계를 혼란시키며 사람들을 미신과 우상숭배의 길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점술 가운데에 있는 악한 영의 유혹에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관점과 자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갖가지 문화적, 정신적, 영적 현상에 대해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지녀야 한다. 우리가 선지자직을 갖는다는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만 아니라 삶과 사회의 저변에 흐르는 영적 현상을 직시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일이다. 둘째, 기복신앙과 미래에 대한 사적인 호기심을 버려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점술과 같은 미신 행위에 노출되고 연약한 것은 그들이 기복신앙과 괜한 호기심을 갖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과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야 한다.

셋째,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살전5:22)는 말씀에 순전히 순복해야 한다. 장난으로 하는 언사, 재미로 하는 운세 풀이와 사주, 호기심으로 하는 분신사마 놀이 같은 악한 모양의 행위는 버려야 한다. 이런 모양을 통해서도 악령은 우리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건은 모양만 있으면 안 되고 능력이 있어야 하나(딤후3:5) 악은 형식이라도 버려야 하는 것이다.

넷째, 악령의 직접적인 공격과 간접적 유인을 경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물리쳐야 한다. 점도 일종의 거짓된 영의 술수임으로 그것을 물리치는 것은 하나님의 영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한다.

다섯째,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그를 신뢰해야 한다. 우리의 운명은 하늘의 별이나 구름의 모습에도, 또 인간이 행하는 어떤 거짓된 점괘와 사술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우주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손안에 놓여 있는 것이다.

꼭 우리의 장래를 알고 싶으면 저 밤 하늘에 반짝이는 못 별들에게가 아니라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에게 물어 봐야 할 것이다.
‘나 예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계22:16)

결론

작금 우리나라는 과히 점술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민의 상당수는 서론에서 통계가 보여주듯이 점술을 신뢰하면서 점을 치는 점집과 역술관을 찾는다. 사람들은 결혼을 앞두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점을 친다. 정치지도자들은 대선이나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도 점을 치고 일반국민들은 이사하면서도 점을 친다. 어쩌면 점을 치지 않고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다는 양 매순간 점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다. 스포츠신문들에는 역술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으며, 일간지들도 ‘오늘의 운세’같은 고정코너가 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점술에 자기 인생을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역술인이 인정을 받는 것을 넘어 유명세를 타고 용하다는 점쟁이들은 거부가 되기도 한다. 그러다보니 점술책들이 인기가 있으며, 본시 역술책이던 <주역(周易)>도 동양철학강의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TV대중강연의 인기있는 텍스트로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비판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물론이지만 불교에서도 그러하다. 하지만 일반 불자들 가운데는 불교적 신앙과 무속신앙이 혼합되어 점집을 찾는 이들이 더러 있다.

하지만 점은 성격상 비계몽적이고 미신적이며, 또 그 본질상 거짓되고 악한 영이나 기만에 의해 이뤄지는 행위이다. 말하자면 그것은 지상에 있는 사탄왕국의 한 영역이다.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혹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혹자는 자신의 삶에 관한 궁금한 것을 이런 방식으로 알아보기 위해, 또 혹자는 나아가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한 일종의 컨설팅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점술행위를 그 근원에서 보면 사탄에 의해 미혹돼 행하는 영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Martyn Lloyd Jones는 점술, 강신술, 그리고 귀신들림 같은 행위들을 ‘공중의 권세잡은 자’의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이는 십자가군병들의 영적 주적(主敵)들이라고 하였다. 이런 것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전쟁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억제하라고 하였고, 다음으로는

그들의 침략전쟁을 거부라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악의 권세를 저지하라고 충고한다.⁸⁾

하여튼 점이란 일반인들게서 일종의 미신적인 인생 컨설팅행위이다.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약4:4) 그 내일 일을 궁금하게 여기면서 그것의 해답을 종교의 영역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어떤 초월적 존재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주술자들을 통해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신적 혹은 귀신적 응답을 들으려는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 자기 인생의 미래를 미리 알고 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계몽된 합리론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이 이성(ratio)에 기초한 주체성을 버리고 비합리적 신비의 세계로 퇴각한 매우 비계몽적인 미신행위의 일종이다. 반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점술행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른 채 타락한 인생이 거짓된 영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는 영적 무지의 행위이면서 동시에 악령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의 행위이다.

그러면 성경은 인생 컨설팅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요엘선지는 하나님의 신이 부여되면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또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였다(욘2:28).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컨설팅을 ‘여호와와 신’, 즉 성령님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길을 안내하며 인도하고 지도하신다. 거짓 영들은 세인들을 미혹과 현혹으로 불투명과 혼란의 미래로 유도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과 보호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끄시는 것이다. 성령님의 인생컨설팅은 안전하고 보장된 컨설팅이다. 이에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마6:34)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점술의 반대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이며, 나아가 ‘염려하지 않고 오늘 이 순간을 감사와 사랑가운데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만 살고 또 그런 삶이 세상에 퍼지면 모든 점술가들과 그들의 배후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⁸⁾ Marti Lloyd-Jones, op.cit.

참고문헌

• 국내문헌

2001년도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조사(개인/가정부문), 2001 국정홍보처
2006년도 한국인 의식, 가치관조사, 국정홍보처 2006

• 국외문헌

Paul Feyerabend, *Against Method*, London 1973

_____, *Farewell to Reason*, London 1987

Martyn Lloyd-Jone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The Battle Against Spiritual Wickedness in High Places*, Evangelical Press 2002

John H. Manas, *Divination Ancient And Modern: An Historical, Archaeological And Philosophical Approach to Seership And Christian Religion* 1947, Kessinger Publishing 2004 reprint,

전광식 교수는 고신대, 독일의 레겐스부르크대, 뮌헨대, 영국의 옥스퍼드대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하버드대학에서 고전학을 연구하다. 「서구의 황혼에 대한 세가지 생각」(1987) 「마르크스주의 이후의 철학」(1995), 「배움과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1997), 「고향: 그 철학적 반성」(1999), 「신플라톤주의의 역사」(2002), 「가난과 부요의 저편」(2004), 「문명의 황혼과 소망의 그리스도」(2005)등의 저서가 있다.

고신대 교무처장과 부총장, 총장대행을 역임하고 현재 신학사상사와 철학사, 그리고 예술사 등을 가르치면서 교수로 사역하고 있다. 아울러 캐나다 밴쿠버의 Trinity Western University/VIEW의 객원교수와 분당 독수리중고등학교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다.